

1983년, 12월, 국가보안법으로 2년형을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해 겨울은 엄청 추웠다. 감방의 마실 물은 금방 얼어버렸다. 한낮의 햇빛은 그만큼 고마웠다. 낮 시간, 교도소의 너른 마당에서 해바라기 삼아 천천히 걷는데 일반수 가운데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눈에 띄었다. 도무지 남에게 해코지를 할 인상이 아닌 청년들이었다. 네다섯 명 씩 모여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나처럼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나를 감호하던 교도관에게 그네들의 정체를 물었다. 알고 보니 그네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내' 라면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여기엔 감옥 간다. 하여 눈물을 삼키며 입영열차를 타야 한다. 나라는 어떻게든 '군인의 길'을 충실하게 걸도록 국민을 계몽한다. 그 옛날 머리터럭이 길다고 가위질하던 군사정부도, 왕십리역에서 애인과 이별을 슬퍼하며 입술을 포개던 입영청년에겐만큼은 관대하였다. 오히려 그 애달픈 장면을 영화로 만들어 청년들의 입대를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삼년 동안 고부신 거꾸로 신지 않은 애인'의 전설이 이 나라 사내들 자랑거리가 되어야 했다. 사내라면 군인답게 살기를 은근히 강요한다. 굵고 짧게 살라고 한다. 가난하지만 착하게 그리고 오래 오롯한 가정을 꾸리려 추천한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고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하였다. 그네들은 감옥



**불자 세상보기**

서동석  
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

**군대 '가고' '안가고'의 차이**

에서도 '전쟁'을 전제로 총을 잡아야 하는 현실을 거부한 저희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파소도담을 타도하자는 외침 때문에 징역을 사는데 그네들은 전쟁 없는 세상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라고 믿어 젊음을 열척의 담장 속에서 보냈다. 그네들이야말로 양심수다. 나는 민중을 착취하는 국가를 뒤엎고 새 세상을 만들자고 외치는데 그네들은 조용하게 '평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아뵤한 일이 아닌가? 지극하게 평화를 말하는 불교신자들은 착하게 군대에 가서 전쟁훈련을 하는데 '야소쟁이'는 고난을 감수하며 입영을 거부하니...  
다행이 군대 '끌려' 가지 않아도 징역 살지 않

게 생겼다. 며칠 전에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영기간의 감정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한다. 꽤 심하니 이런 벌을 주는 것 같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대개 '여호와의 증인'인 8백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입영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는 판에 정부의 이런 방침은 참 짙한 일이다. 전쟁훈련을 거부한다고 징역을 살게 하는게 제 정신인가? 말쑥한 청년을 전과자로 만드는 '국가지침'은 진즉에 없었어야 했다. 인권유린이 따로 없다. 일본이 군사훈련하면 난리를 피면서 왜 이 나라에서는 미군과 함께 조국강토를 짓밟는 군사훈련은 열심인가? 이 나라의 해병대는 참 특이하다. 동네마다

'누구나 해병이 되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다'는 시벨칸 글씨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군대 가지 않으려는 청년들, 그것도 돈이나 권력이 있는 집주식의 자식들 때문에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가슴에 멍이 든다. 그런데, 그런 나라지만 해병대는 지원자가 넘친다. 재수에 삼수까지 한다. 정말 '누구나'가 갈 수 없는 군대가 해병대다. 서울대학교만큼이나 들어가기 어려우니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턱없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가끔 정신교육 한다면서 어린 청소년이나 기업체 임직원, 어떤 때는 아가씨들만 따로 모아서 며칠 씩 '뺑이' 치는 훈련을 한다. 그래도 인기가 높다. 돈 내고 고된 훈련을 받는다. 돈 주면서 군대에 끌고 가는 '국민의 의무'는 싫어 하지만 해병대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징병제다. 신체 건강하고 정신 멀쩡하면 이십대 초반에 군대에 가야한다. 군대 갔다 오면 취직하는데 가산점을 준다. 대신 안가면 감옥가야 한다. 그래도 말쑥한 사람이라면 강제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 한다. 자원해서 해병대는 있는데, '군바리'는 안 되려고 한다. 참 웃기는 현실이다. 해병대에는 뭘가 있나 보다. 그게 뭘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집에 대체복무만이 아니라 국민개병제인 '징병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게 한다면 지원자는 충분할 것이다. 나는 대체복무를 넘어 모병제의 시행을 주장한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동국대 교수들이 이사회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발적인 서명운동으로 교수들의 요구가 형성됐다. '신정아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와중이라 동국대 교수들의 요구는 각이 매섭다.

이제 신정아씨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정아씨도 '몰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군 상황이 아닌가. 거기에 영배 스님이 창건한 흥덕사와 변양군 실장이 재직 신도로 등록된 보광사. 동국대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가 소속된 월정사 등에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교부금이 지원된 것에 대한 의혹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보니, '신정아 사건'은 불교계에 매우 위험한 불길로 번지고 있다. 학력의 진위가 발단이지만 이제 사건은 학력의 문제를 떠나 권력의 비호라는 영역 속에서 교부금의 지원 과정까지 파헤쳐지고 있다. 정말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번져갈지 아무도 모를 '요원의 불길' 같다.

이 불길을 잡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으로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게 가장 빠른 진화 수단으로 보여진다. 동국대 교수들의 이사진 사퇴 요구는 학교와 종단 나아가 불교계를 빨리 신정아 사건에서 헤어나게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신정아씨의 학위를 놓고 이사장 영배스님이 '진짜'를 확신하는 발언과 함께 '아니면 책임지겠다'는 말도 공식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목소리는 일정부분 힘을 얻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도 종립학교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가능한 기구를 동원해 책임 소재도 가리고 법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종단차원의 대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교부금 지원 오해 없도록**

전통사찰에 문화재 보존과 수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인 쉐인드, 문제는 이 사건에 연루되어 제기되는 교부금관련 의혹들이 교부금 자체의 신도소득 부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변양군 前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파장은 메가톤 급이다. 이 사건과 관련 연일 터져 나오는 이슈는 대개가 의혹과 진실 찾기 게임으로 맥을 함께 한다.

거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부금 문제다. 동국대 재단 이사 스님들이 소속된 사찰로 적지 않은 금액의 교부금이 지원됐고 흥덕사의 경우 압력행사가 인정되고 있어 교부금 지원이 비리의 결과물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부금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법적 통로를 통해 정당하게 요청되고 적법하게 지원되고 투명하게 쓰여야 할 국민의 월세다. 이 돈과 관련된 부조리가 드러난 적은 거의 없다. 신청하는 전통사찰의 절반 정도만이 지원을 받는 '쉽지 않은' 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쉽지 않은' 돈이 너무 쉽게 혹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드러나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사찰에 피해가 갈까 염려된다. 조계종은 사건의 흐름을 보고 있지만 믿고 교부금 지원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알리는 조치를 마련해 국민적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

**현대불교 독자위원회의 '평가와 의견'을 들어드립니다**

**“다음 특집은 뭘까? 궁금해”**

현대불교신문 독자위원회는 640호(8월 8일자)~646호(9월 19일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들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김남기·김시열·손재현·이남숙·이상호·한주영 위원 (가나다순)>

손재현: 현대불교신문의 편집 구성은 다른 신문들보다 잘되어 있어 보인다. 일목요연한 편집과 시의적절하게 가미된 디자인요소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각적인 편안함을 준다.

이남숙: 매주 받아보는 신문의 면 하나하나가 사짜임은 나무랄 곳 없이 편안하고 좋다. 이런 부분은 중앙일간지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꼭지마다 짧팍하게 일한 내용은 참 좋다.

김시열: 현대불교신문의 다양한 변화 시도는 매호 신선하며 애독자 입장에서 감사하다. 일례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특집호 가운데 백중 특집호(642호)를 들 수 있다. 봉축과 여름 특집호로 이어지면서 '특집호=색지'라는 공식을 깨고 백중 특집호의 별지를 색지로 한 시도도 좋았다.

출판사를 운영하다보니 특히 출판면을 주의 깊게 본다. 한승원 선생의 소설 <주사>를 소개하는 글을 서간 형식을 빌려 한 것과 같은 기사는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 외 부단하게 이어지는 편집, 구성의 파격적인 시도는 현대불교신문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변화시도 신선...퀵엔츠까지 이어져야**  
이상호: 원운 스님의 '선 수행의 길잡이' 선가

귀감', 이창숙 연구원님의 '인류문화속의 자' 등 643호에 연재를 마치는 코너가 많았다. 애독자 중에는 서운한 분들도 많겠지만 현대불교가 다른 모습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한다.

한주영: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연재물로 불교 교리나 수행에 관해 수준 높은 정보의 다방면의 지식을 얻고 있다.

이남숙: 새로 시작된 송천우 교수의 연재는 매우 기대된다. <지관좌선법>을 통한 묵조·지관·간화의 정리가 세심하고 명료하게 쓰여 있어 재가불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김시열: 다양한 변화시도는 좋으나 내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이웃, 저 이웃은 자주 바뀌고 나오기는 하는데 말투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이라 할까, 기사 가운데 연재물이 매우 매주 신문을 읽다보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크다.

김남기: 현대불교가 교계에서 가장 자리 잡고 있는 신문 아닌가. 적재적소에 가미된 사진이나 일러스트 등이 신문의 각 장을 넘길 때 시원한 손맛을 준다. 다만 사회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작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독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 필요**

이상호: 645호의 '영통사 돌출발원 물의 김규철 대표 공개사과' 기사에 대해 당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전에 있었던 돌출발원의 내용을 짧막하게 언급해 준다면 독자들이 다시 관련 기사를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주영: 646호 '가족이 먼저? 종교가 먼저?'의 기사는 한가위를 앞둔 시점에 시의적절한 기획기사였다. 불교적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대응 방법이 아쉬웠다.

이남숙: 신행수기 공모를 보니 상이 많이 줄었다. 그래도 감사할 따름이고 다행으로 생각한다. 범죄 관련 기사가 나면 찾아가는 편인데 가끔 정보가 지났거나 맞지 않아 안타깝다. 행사 안내 같은 것은 미리미리, 보다 정돈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사회적 이슈에 보다 적극 나서시길**

이남숙: 646호 '선지식을 찾아서' 코너의 대신 스님의 '수행자는 가난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읽으니 밥을 위해 법을 팔지 않는 울골은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큰스님, 종립학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요즘 불교계가 많이 소란한 시점이라 더 크게 닿는 말 같은데... 이런 때에 현대불교가 제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한다.

김남기: 문화재관람료 문제만 보아도 불교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냉랭해졌다. 다른 이야기로 이명박 후보가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할 때와 지관 스님을 천진했음을 때를 비교해보면 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신문사들의 반응은 답답하다. 불교계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현대불교가 불자들을 리드해 달라.

\*이벤주 '종교자유칼럼' 쉽니다.

**주지 직인 무효 공고**

- 사찰명 : 교현사
- 전임주지 : 헤가(위술환)
- 주 소 :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36번지

위 사찰의 전임주지 직인 및 교현사 직인은 2006년 11월 20일 이후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9일

사)대한불교법회종 교현사 주지 흥선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태조사
- 주 지 : 정관(김홍근)
- 주 소 : 서울 양천구 신정3동 781-10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8일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 명 : 지관(손진옥)
- 사찰명 : 감로사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평면 우각리 38

상기 본인 및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법명:혜환(이옥순) 창건주
- 승번:04-330
- 법명:성운(방종혁)
- 승번:041-176

- 사찰명 : 용화사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606번지

위 사찰과 승려 2명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